

# 민주당 '孫 친정체제' 구축...변화 시동

사무총장 정장선  
정책위원장 박영선  
대변인 이용섭  
비서실장 김동철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3일 사무총장에 정장선(경기 평택)의원, 정책위원장에 박영선(서울 구로을)의원을 각각 임명하는 등 전면적 당직개편을 단행, 인적쇄신의 깃발을 치켜 들었다.

당 대표 비서실장과 대변인에는 김동철(광주 광산갑), 이용섭(광주 광산을)의원이 각각 기용됐다.

야권통합특위 위원장에는 이인영 최고위원이 유임됐으며 과학밸트, LH 공사 이전, 동남권 신공항 등 3대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3일 사무총장에 정장선(경기 평택)의원, 정책위원장에 박영선(서울 구로을)의원을 각각 임명하는 등 전면적 당직개편을 단행, 인적쇄신의 깃발을 치켜 들었다.

당 대표 비서실장과 대변인에는 김동철(광주 광산갑), 이용섭(광주 광산을)의원이 각각 기용됐다.

야권통합특위 위원장에는 이인영 최고위원이 유임됐으며 과학밸트, LH 공사 이전, 동남권 신공항 등 3대

제 강화에 무게 중심이 실렸다는 분석이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 '투톱'에 이어 수도권 출신이 요직인 정책위원장과 사무총장에 투입되면서 전국 정당화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즉근 그룹의 기용은 혁신과 통합의 주동력을 확보하면서 총선 및 대선을 준비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재선 출신으로 박영선 의원

이 여성으로는 최초로 정책위의장에 발탁된 것은 당의 쇄신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의원과 김동철 의원은 각기 전문성과 즉근 기용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지만 수도권 출신 현장에 대한 호남 안배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손 대표는 이날 인선을 시작으로 인적 혁신과 통합에 본격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당장, 이달말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인재영입위를 발족, '외부 수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손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당 전략 및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홍보본부장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도 미쳤으며 본부장에는 박선숙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연봉이 8000만원인데 쌀 직불금 받나"

### 국회 서규용 농림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추궁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23일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서 내정자의 쌀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과 변칙 증여 의혹 등이 주요 질점이 됐다.

서 내정자는 충북 청주시 일대에 과수원과 전답을 소유하고 있는데, 농지원부 등에 실제 경작자로 등록한 뒤 2007년부터 2년 동안 쌀직불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당시 서 내정자의 생활근거지가 서울이어서 직접 경작이 가능했느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이날 "일주일에 2~3일 내려가 농사를 짓았다는 주장하지만 이웃 주민들 중 본 사람이 없다"며 "내정자는 농민의 조건, 자경의 조건을 결여하고도 쌀직불금을 2년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농식품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득감소를 보전하고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연봉 8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받은 것은 직불제의 본질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은 "쌀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농민의 자격은 ▲ 90일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하는 자경일 경우"라며 "내정자는 농민의 조건, 자경의 조건을 결여하고도 쌀직불금을 2년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농식품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역시 같은 당 이용석 의원은 "서 내정자가 본인 주소지로 신고한 울량동 1121번지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며 "가짜 농부로 만들어서 세금을 포함했다"고 고개했다.

이에 대해 서 내정자는 "제가 쌀 직불금을 받은 것은 정당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좀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다"고 답했다.

서 내정자가 장남 부부에게 3억 500만원을 베팅하여 했다는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6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 첫 날인 23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가 라운지

#### 군공항 소음 공청회·현장시찰

#### 진보신당 시도당 반핵 도보행진

국회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대책 특별위원회' 산하 '군 공항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군 공항 특위·위원장 김동철)가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대책 입법을 위한 공청회와 현장시찰에 나섰다.

군 공항 특위는 23일 국회 특위 회의실에서 군 공항 소음관련 각계 전문가들과 국방부·기획재정부·차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관련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24일에는 대구 K2 공군기지를 방문해 실제 소음실태를 측정하는 등 현장시찰을 나설 계획이다.

김동철(민주·광산 갑)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핵심 핵심을 조율하고 정부 측을 설득해 합리적 대안을 도출, 오는 6월 입시국회에서 관련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소위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주한 미군기지 고엽제 전수조사 촉구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주한 미군의 양심고백을 통해 밝혀진 고엽제 매립 범죄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당은 "무려 34년 여 동안 고엽제 매립 비밀을 숨긴 것으로, 이러한 미국의 범죄가 과연 칠곡 캠프 캐슬에서 서 있었겠는가 의문이 든다"며 "주한 미군 전체 기지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 강기정 의원 총효상 수상

민주당 강기정(복감) 국회의원이 최근 (사)총효국민운동본부(이사장 하말수)로부터 총효상을 받았다.

송병규(사)총효국민운동본부 광주·전남본부장은 강 의원의 수상 선정에 대해 지난 2007년 기초 노령연금법을 대표 발의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9만 원의 연금을 받도록 한데다 92세 된 노모를 20여 년간 모신 공로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이낙연 전 총장 교체 왜?

민주당이 제2기 손학규 대표 체제를 출범시킨 가운데 이낙연 전 사무총장의 교체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이 전 총장은 손 대표의 당 안착을 도모한 데서 4·27 대선 보선을 승리를 이끈 공로로 유임이 점쳐졌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비서실장과 대변인 등이 일괄 사퇴를 표명할 때도 이 전 총장은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손 대표 주변에선 비록 재

### 호남 부담보다黨 인적쇄신에 무게

신임을 받더라도 당 대표의 운신 폭을 넓혀주기 위해 일단 사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던 중 이 전 총장은 최근 손 대표에게 "전당대회 이후 (손 대표의) 당 안착에 역할을 했고 이제는

도약의 시기이니만큼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됐다. 부담을 갖지 말고 편히 선택해 달라"고 사실상의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기 위해 부심했다는 전언이다. 후임 사무총장감을 호남에서 찾았고 여의치 않자 정책위원장감을 찾기도 했다는 것이다. 초선인 이용섭 의원은 정책위원장 후보로까지 거론한 것은 이 같은 고민의 연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손 대표의 한 측근은 23일 "당 3년이 수도권 출신으로 채워지자 호남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나머지 당 5년 중 두 자리인 비서실장과 대변인을 광주·전남 출신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당이 치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남권이 주축인 구주류 층은 종도로의 의연 확대가 보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교각살우(彎角殺牛)'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설부른 노선 변경은 보수 정체성을 훼손, '집토끼'마저 나쫓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친이 직계인 조해진 의원은 "기본 가치를 버리고 당의 중심을 중간지대로 옮겨가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

이라며 "중도를 끌어안으려 할수록 오히려 보수 가치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친이이케인 심재철 전 정책위원장은 반값 등록금 추진에 대해 "민주당의 비현실적 주장과 비슷하다"며 "아무리 표가 급해도 '표(票) 풀리즘'을 내세우면 나라만 결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與 '친서민정책' 싸고 노선갈등

#### 신주류 반값 등록금 등 잇단 추진에 구주류 "정체성 훼손" 우려

한나라당 신주류가 친서민 정책 드라이브를 가속화하면서 당내 혼란·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신·구 주류 간 노선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현재 당권을 편 신주류 층은 당의 중심을 '우(右)→중도'로 이동하는 입장이지만, 구주류인 친이(친이명박)계는 혼위에서 맞춤형 중도실용 정책을 구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신주류가 장악한 원내대표단은 전날 반값 등록금 정책에 이어 일자리 창출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보육 및 기초노령연금 등에 대한 '친서민 정책 시리즈'를 잇따라 발표한 바

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식 정책위원장은 23일 "현재 정책에서는 서민 예산 10조원을 확보, '친서민 정책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 예산 10조원 확보는 추가로 '새로운 한나라' 소속인 정태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의 정체성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겸비하면서 경제사회적 불평등 구조와 양극화 심화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친박계 의원은 "3개 정권이 실

### 남성 성기능 강화제

본제품은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 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돋구어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뮤큐나프리언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함으로서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 설크워킹 및 제품특징

① 평소에 발기는 되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루가 있는 분들은 성관계 전 약 2~3시간전에 1정을 설크워킹하면 1~5일까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② 발기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은 1일 2정을 3~7일 정도를 연속으로 설크워킹 하시면 발기가 잘됩니다.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확인하세요.

문의 010-7770-8138 주문즉시택배  
농협 302-0136-6325-61 권옥연

#### 금산공인증개사

#####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 위치

-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앞  
(4면 광로변)

###### ■ 대지면적

- 4,280㎡  
(180평 분할가능)

###### ■ 3.3층 매매가

- 1,300만원

###### ■ 공동 복합 APT 주택기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 종합병원/상가/오피스

유용기능

###### 장점

①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②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③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④ 최고의 교통 접근성

광주시청 접근성과 광·송간

5·18 광로변

⑤ 상무신도심 중심 상업 병화자구

※ 10층 신축건물옆 코너

H.P.011-601-5354

#### 대인동삼일부동산

#####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div